

## P-15 치조골 결손부에 흡수성 차폐막만 사용한 경우 또는 탈회동결건조 골 이식도 함께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흡연이 그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강태헌, 류인철, 정종평, 최상묵, 한수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목적

이 연구에서는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치조골 결손부에 흡수성 차폐막 및 탈회동결건조골을 이용한 치주재생 술식을 시행하여 단기간(4개월)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 방법

모두 32명의 환자가 실험에 참가하였다(흡연자 46명, 비흡연자 46명). 또한 이 연구에서는 탈회동결건조골 이식여부에 따른 흡수성 차폐막의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실험 대상환자에서 총 92개의 치조골 결손부를 무작위로 흡수성 차폐막 단독군과 탈회동결건조골과의 복합군으로 나누었다. 단, 각 환자가 두가지 형태의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상지수의 측정(치주낭 깊이, 치은퇴축, 임상적 치주 부착, 치태지수, 그리고 치은지수)은 시술 직전과 시술 4개월 후에 시행하였다.

### 결과

4개월 후 흡연자(2.93mm) 및 비흡연자(3.3mm) 모두 유의한 부착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leq 0.05$ ). 마찬가지로 두 군 모두 유의한 치주낭의 감소를 보였다(흡연자 4.52mm, 비흡연자 4.26mm). 부착수준과 치주낭 깊이감소에서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치은퇴축량에 있어서는 흡연군의 치은퇴축이 유의하게 많았다(흡연자 1.59mm, 비흡연자 0.96mm). 한편 Split-mouth-design을 통한 흡수성 차폐막 군과 골이식을 함께 사용한 군의 비교에서는 치주낭 깊이, 치은퇴축 그리고 치주부착 모두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의 결과, 치주부착 수준의 증가가 비흡연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비흡연군으로서 흡수성 차폐막과 탈회동결건조골을 함께 사용한 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흡연이 치은퇴축 외의 임상적 치료결과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또한 흡수성 차폐막 단독군과 탈회동결건조골과의 복합군 모두 유의하게 향상된 임상결과를 보였지만 골이식의 부가적 사용이 특별한 잇점을 가져다주진 못했다.